

# 상무대 182명 집단감염...켄타우로스 확진 2명

###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 광주·전남 사흘 연속 3000명대 영광 의료기관서 13명 확진 전국 7만명대, 더블링현상 3주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광주·전남에 사흘째 3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졌다. 군부대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기존 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까지 추가로 확인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650명, 전남 1694명 등 3344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9일 3327명, 20일 3026명 등 사흘 연속 30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전남에서는 육군 교육시설인 장성군 상무대에서 열흘 동안 18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상무대에서는 지난 12일 8명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열흘 동안 18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영광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이날 13명이 확진됐다.

시·군별로는 여수 290명, 순천 286명, 목포 200명, 광양 176명, 나주 126명, 무안 69명, 장성 67명, 화순 59명, 담양 58명, 영광 54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코로나19 BA.2.75 변이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사흘째 7만명대 확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BA.2.75 변이 감염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2명이 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해 이를 뒤인 7일 확진됐다. 이는 지난 11일 확진된 뒤 14일 이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국내 첫 확진자보다 이른 시점이다.

확진 후 2주가 지나야 변이가 확인된 것과 관련, 질병청은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한 전장유전체 기반 변이 분석은 확진 후 검체 도착까지 길게는 10일, 이후 분석에 5~7일이 소요된다. 이번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확진된 검체를 확인하고 도착하는데 7일, 분석에도 7일이 걸려 총 2주가량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BA.2.75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와 비교해 스파이크 유전자 변이가 8개 더 많아 더 효과적으로 세포와 결합해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성질이 강하다. 특히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면역회피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된 BA.5보다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신규 확진자도 이날 0시 기준 7만1170명 늘어 누적 1900만9080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25일 누적 1800만명을 넘는 지 57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로 확진된 것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7만6402명)보다 5232명 줄었지만, 지난 19일(7만3573명)부터 사흘째 7만명대를 유지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4일(3만9182명)과 비교하면 1.8배, 7일(1만8502명)과 비교하면 3.8배로 증가했다. 이달 초부터 1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계속되고 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21일(9만846명) 이후 13주 만에 최다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기차는 왜 불이날까

###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 2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1~23일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기차, 왜 자주 불이날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2022 국제그린카전시회' 개막식에 앞서 개최되는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전기차 화재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화재 진압 및 충돌 후 폐차장 재발과 등의 화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를 다룰 수 있는 정비사, 결인 기사, 폐차장 종업원 등에 대한 소양 교육과 비정상 사용 조건에서의 리튬이온 배터리 취급 요령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균성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안전팀장은 '미래차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보장하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화재 확산 방지 기술 개발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충·방전 중에 발생하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선진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성 한라대 미래모빌리티 겸임교수는 "정확한 조사와 함께 명확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고 조사와 결합 조사는 다른 영역인데 이를 혼동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전기차는 작은 충격에도 배터리가 폭발한다'는 식으로 각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액상전자담배, 초미세먼지 일반필연담배의 12배 배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필연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845μg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연담배(1만4415μg)의 12배에 달했다. 필연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100μg로 필연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필연형 전자담배, 필연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필연형 전자담배는 6~7m, 필연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연합뉴스

## 넷플릭스 안되는 중, 드라마 '우영우' 불법시청 서경덕 "어이없어...중국 당국 나서서 단속하라"

ENA채널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하 '우영우')가 넷플릭스 비영여권 드라마 부문에서 2주 연속 시청시간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시청이 만연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젠 중국 당국이 나서서 단속하라"고 일갈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야기를 다루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 교수는 21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도둑시청"도 어이없는데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판'에서는 자신들끼리 평점을 매기고, 리뷰는 이미 2만 건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인 '시나'도 '우영우'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며, 한 네티즌이 만든 팬 계정에는 3만여 명이 달하는 팔로워가 시청했다고 보도했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몰래 훔쳐보면서, 할 건 다 하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데도 지난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지옥' 등의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했다.

국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사설 모니터링 업체 등을 활용해 대응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드라마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 교수는 "이젠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 '진도 아리랑',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고흥 마동 별신제와 매구'도...체계적 보존·효율적 활용 기대

전남도가 21일 '진도 아리랑'과 '고흥 마동 별신제와 매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나선다. 별신제는 마을 수호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고, 매구는 풍년을 비는 민속행사(농악)다.

진도 아리랑(도 무형문화재 제64호)은 강원 정선 아리랑, 경남 밀양 아리랑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아리랑 중 하나다. 아리랑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데 이어 2015년 9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여기에 각 지역별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사·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전남도가 이번에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진도 아리랑은 남도 지방의 전통 음악선율인 '육자배기'를 기본으로 한국의 민요 및 남도민요의 정수를 보여준다. 전통성과 예술성

이 높아 보존·전승가치를 인정받았다.

고흥 마동 별신제와 매구(도 무형문화재 제63호)는 약 200여 년 전부터 전승된 고흥의 민속문화다. 마을 문서인 '별신제 절의', '교자계안'에서 확인돼 그 연원과 역사성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외부의 농악이 들어오지 않아 비교적 문화유산의 전형(典型)이 잘 전승 보존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무형문화재의 신규 종목을 발굴·지정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보성 용연정사', '호남 여성농악-포장결립' 등을 문화재자료와 무형문화재로 지정(인정)을 예고했다. 앞으로 예고기간인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후원         | 승선문의         | 예약센터                                       |
| 삼도해운, 플래티늄 | 061-834-3434 |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